



인공와우 이식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조성일 교수

보청기 착용해도 듣지 못하는 환자 효과적

와우는 달팽이관을 뜻하며, 인공와우 이식술은 양측 청각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환자 보청기를 착용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 장치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조성일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귀 속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의 귀를 진찰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달팽이관 내로 직접 전극을 삽입해 남아있는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함으로써 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하고 청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인공와우이식기는 수술 후 7주 안에 착용하게 되는 외부 음향처리기와 수술을 통해 달팽이관에 삽입하는 내부 이식기로 구성된다.

인공와우이식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송화기를 통해 소리가 들어오면 외부 음향처리기인 언어처리기에서 전기신호로 부호화된다. 부호화된 전기신호는 전파코일을 통하여 무선으로 피부 속에 삽입된 안테나로 보내지고 이는 다시 내부 이식기인 수용·자극기로 전달된다.

정확한 언어 평가 후 수술 결정... 재활 매우 중요

선천성 난청일 경우 어릴수록 수술 결과 좋아

토대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입원해 전신 마취 하에 시행되며, 수술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다.

수술 후 대략 4주에서 6주가 지나면 인공와우 이식 장치와 어음(말소리) 처리기의 작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전문 청각사에 의한 조율이 시작된다.

선천성 난청 어릴수록 수술 효과 탁월

어린이의 경우 조율의 과정은 특정

한 행동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어른에 비해 많은 시간과 경험해 요구한다. 또한, 수술 후 말소리를 인식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인공와우를 이식받은 환자는 이식 후 소리를 듣게 되지만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들을 뿐이지 소리를 변별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리를 변별하고 인지해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 환자와 가족, 의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교사 등 모든 사람의 꾸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고 언어치료를 잘 받은 선천성 난청 어린이의 경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진학이 가능한 정도의 언어발달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과 언어 재활 치료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농(무청각증)이 된 시기와

수술 당시 나이이다. 즉 선천성 난청의 경우 수술 당시 나이가 어릴수록 수술 후 결과가 좋으며, 성인에서는 농(청각 문제가 생긴 상태) 기간이 가능한 짧게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수술 후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고 한 달쯤 전원을 켜게 되면 환자는 소리를 느끼게 된다. 물론 정상인이 듣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환경음을 감지하게 돼 소리에 반응할 수 있고, 계속되는 재활교육을 통해 말소리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아주 재활이 잘된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알아듣게 되고 전화 통화도 가능하므로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성일 교수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이식 후 소리를 듣게 되지만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들을 뿐이지 소리를 변별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리를 변별하고 인지해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 환자와 가족, 의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교사 등 모든 사람의 꾸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대병원, 대장·유방암 수술 '최고'

심평원 적정성 평가 1등급

조선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실시 대장암수술 적정성 평가에서 작년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이 최초로 실시한 '만 18세 이상 여성 유방암 수술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대장암은 진단방법의 발전과 더불어 치료성적이 향상되고 있지만, 식생활의 서구화와 인구노령화 등

으로 수술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 평가는 2012년도 진료분에 대해 266개 기관의 총 1만 8430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수술을 시행한 연령은 60대에서 5372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도 종합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7.27점 높아진 89.97로 점수가 올랐으며, 수술사망률은 0.06% 감소한 1.17%로 낮아졌다.

입원일수도 15.2일에서 14.8일로 감소해 전반적으로 수술 실적 및 수술 결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지난해 7월~12월까지의 160개 기관의 진료분 4574건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구조부문을 비롯한 진료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총 20개 지표 중 3개를 제외한 총 17개를 종합해 그 결과를 산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메리 크리스마스'

조선대병원 토요타 자선콘서트 환자·보호자와 함께 기쁨 나눠

조선대병원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조선대병원과 함께하는 토요타 자선콘서트'를 열었다.

4회째인 이날 콘서트에서는 가수 이기찬 등이 출연해 그의 히트곡 '미인', '감기',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등을 불러 호응을 얻었고, 캐롤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 몸과 마음이 아

파 지쳐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에 큰 기쁨을 선사했다.

이들은 또 콘서트 시작 전 소아 환자들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산타할아버지와 사진 찍기 행사를 갖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에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영화상영

을 하고 있으며, 매일 둘째주 화요일에는 '생명나눔 차 봉사'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있다.

또한 고직원들은 수시로 '천사 캠페인'을 통해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친절함 등 대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김권천 교수, 2년 연속 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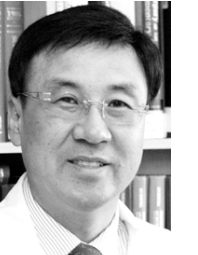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조선대병원 김권천 교수(외과·사진)가 2년 연속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권천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총회에서 '유두상 갑상선 암에서 사이클린 D, 시

토크라틴 7-20, 비멘틴의 발현 및 예후 인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한쪽 엽에 국한된 고분화 갑상선암에서 갑상선 열결제술의 임상적 중요성'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술상을 받았다.

과학회에서 정교관리 이사로 활동 중이며, 2014년 4월 조선대에서 개최될 갑상선 내분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준비중에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 Naju, featuring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and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with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rent.

Advertisement for '금당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for sale/rent.

Advertisement fo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공장 급매매' listing industrial properties for sale.